

CKP International Alert

September 2010

By Hoon Kim (949.757.0900 or hoonkim@ckpcpas.com)

본 뉴스레터는 미국 5대 회계법인인 RSM McGladrey의 멤버펌이자 미국내 한국계 최대 회계법인인 Choi, Kim & Park, LLP가 다국적기업 고객을 위하여 수시로 발행하고 있으며 Executive Summary 이므로 중대한 의사결정시에는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1년 주식회사에 대한 미국세청(IRS) 조사 방침

총자산 5천만불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최근 IRS의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의 자진신고 내용에 대한 무조정(no change) 비율이 32%나 되었는데, 이는 IRS의 행정력 및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결과가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09년 세금보고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내년(2011)에는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무조정 조사비율을 10%미만으로 낮추기 위하여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수정하고 정밀조사 대상자도 늘리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Problem Tax Preparer'가 작성한 세금보고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보도자료에서 IRS는 납세자가 세무전문가 또는 회계법인을 선택할 때 전문성, 정직성 등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와 과세당국 동향

지난 8월10일 하원에서는 11억불에 이르는 국제조세 증세 법안을 승인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줄이고 이전가격 등 조세조작을 집중 감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10월 1일자로 IRS는 국제기업을 담당하던 LMSB (Large-Mid Size Business) 부서를 LB&I(Large Business & International) 부서로 조직을 개편하고 빠른 시일내 국제조세조사관 875명을 증원해 총 1,500명 수준(현행 약 600명)으로 늘리는 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최근 여러 명의 경제학자들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회사 대출금의 본사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 청구

멕시코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미국 자회사의 대출금에 보증을 서고 그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청구 하였고 미국 자회사는 보증수수료 지급액에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통상 30%) 없이 전액을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최근의 IRS와의 소송에서 IRS가 패소하였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해외 관계회사 대출금에 보증을 썼을 경우 정당한 보증수수료를 청구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현지법인이 정상 운영되기 전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현지 대출금에 대한 본사의 보증을 당연시 해 왔던 은행거래 관례에 비추어서 한국 기업들도 멀지 않아 이러한 요구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당사자는 이러한 보증수수료에 대하여 미국세법 제482조(이전가격)규정에 의해 정당한 시장가격(arm's length fees)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불확실한 조세위험(Uncertain Tax Position:이하 UTP)에 대한 IRS 자진보고 및 정보교환

지난 July 2010 Alert에서 언급한 UTP 결산 조정이 있을 경우 2010년부터 세금보고서에 UTP 내용을 IRS에 보고(자진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확정되었다. 보고 의무 대상은 총자산 \$10 M (천만불)이상인

기업인데 많은 경제단체들이 보고대상을 \$50M이상으로 조정 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IRS는 냉정히 거절하였다. IRS는 UTP 보고가 시작되는 2010년의 세금보고가 조세수입의 금광(gold mine)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 그리고 외국 정부도 IRS와 UTP 자료를 공유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UTP 조정위험이 가장 많은 분야는 이전가격 조정(Transfer Pricing Adjustment)과 복수주세(Multi-state tax 혹은 "Nexus") 분야가 예상되며, 따라서 한국계 기업을 포함한 많은 다국적 기업과 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감시가 전례없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계 미국 현지법인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적용

2011년부터 IFRS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 2011년 재무제표와 같이 공시될 2010년 재무제표의 결산부터 실제적인 IFRS 적용이 시작되는데 정상적인 결산을 위해서는 2010년 기초 (혹은 2009년 기말) 잔액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으로 변환(conversion)이 올해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기초잔액의 IFRS 변환은 최초년도부터 IFRS를 사용했다면 어떠한 결과(회계잔액)가 될 것인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년도의 미국회계원칙을 전부 IFRS로 재적용하여 장부를 재구성 해야 한다. 이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며 많은 한국계 대기업들은 이미 변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킬라도라 한국기업

멕시코 이전가격 조사 지침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멕시코 과세당국은 두단계의 절차를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세무목적상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후 미비사항이나 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납세자에게 조사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선정에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한 회계법인의 전문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단일세율의 최저한세(IETU)에 대한 합헌 결정

마킬라도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IETU에 대하여 멕시코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하였다. 현금흐름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므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절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고기계 장비에 대한 마킬라도라 혜택 취소

멕시코내에서 이미 사용되었거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였던 중고 기계장비를 다른 마킬라도라에 이전할 때는 마킬라도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다만 2006년 11월13일 이전에 마킬라도라 등록을 한 업체는 예외로 하였다.

CKP News

미국 5대 (세계 6대) 회계법인 RSM McGladrey는 brand를 "McGladrey"로 통일하기로 하고 로고를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Member firm인 CKP도 "McGladrey Alliance"의 새 로고를 사용합니다. McGladrey는 매년 10월에 열리는 PGA tour "the McGladrey Classic"을 주최한다고 발표 했으며 PGA 선수 David Love III, Zach Johnson, Chris DiMarco 그리고 LPGA 선수 Natalie Gulbis와 Sponsor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CKP는 자체적 또는 RSM McGladrey와 연합하여 이전가격분석을 비롯한 국제조세분야에 Big 4 firm 수준의 전문가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수십건의 이전가격 분석, IRS와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협상, IRS 이전가격조사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KP는 다수의 한국회계사를 비롯 국제회계기준 (IFRS) 분야에도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